

썰 단상(斷想)

- 한국 최초의 썰 이야기

글_남상욱(썰수집가)

일제시기의 썰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9년간 모두 9종이 발행되었으며 이중 일부 연도의 썰은 재판이나 수정판이 있으며 1940년의 경우는 미발행 썰도 존재하고 있다. 우표수집가이기도 했던 홀 박사는 연도 별로 썰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썰에 대한 전지 및 썰첩(Booklet)을 병행하여 발매하였다. 일제시기의 썰 전지는 보통 25매(5×5)로 구성되어 있으며, 1933년과 1934년의 경우는 50매(10×5) 썰로 구성되어 있다. 썰첩은 수집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일반인이 썰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대개는 10매의 썰을 하나의 페인(Pane)으로 하여 페인 5장을 기본으로 썰첩(즉 50매의 썰)을 만든 후 썰첩 앞면과 뒷면에 인쇄된 표지를 부착하고, 썰첩 왼쪽 부분을 바느질이나 스테이플러(Stapler)로 편철(編綴)하여 발매하였다.

최초 썰의 도안

초판의 도안 일제강점기인 1932에 처음 발행된 썰은 일제시기에 억압받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Help Fight Tuberculosis!
Buy Korea's First Xmas and New
Year Stamps 50 for 50 cents (one year)



- Proceeds used for :-
1.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Literature
 2. Free Clinic and Charity Patients
 3. Laboratory and Research work in Tuberculosis

Merry Christmas 1932
Happy New Year 1933





▲▲ 썰 페인(1932년 초판)
▲ 썰첩 표지(1932년 초판)

썰에 대한 대중들의 즉각적인 호응을 얻고자, 당초에는 좌우에 노가 각각 8개씩 있는 모습의 거북선으로 썰 도안을 결정하고 홀 박사가 직접 도안하였다. 그러나 이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총독부 일본인 담당 공무원의 반대로 승인이 되지 않자 할 수 없이 조선을 상징하는 서울의 남대문으로 도안을 수정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최초의 썰(초판) 도안인 남대문에 대해, 홀박사는 자서전(원제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1978) 436쪽에서 『크리스마스 썰 도안인 남대문은 결핵을 방어하는 성채(城砦)를 상징한다(In this case, as a Christmas Seal design, it would represent a bulwark against tuberculosis)』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홀 박사는 1972년 12월 15일에 자기의 썰 관련 수집품 일체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Smithsonian)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기증품에는 홀 박사가 도안한 거북선 썰 원도가 포함되어 있다. 거북선 썰 원도는 국내 썰 수집가인 서원석 님이 스미소니언박물관을 방문하여 홀 박사 소장품을 조사한 후 이를 보건세계지(1993년 6월호)에 최초로 소개한 바 있으며 결핵협회에서 썰 발행 50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 책자(2003.11.6)에도 수록된 바 있다.

재판의 도안 재판 썰은 썰 발행 5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재발행(Reprint)하였다. 재발행에 사용될 썰 도안은 남대문으로 초판과 동일하지만 인쇄 판형이 다르며 썰의 경우 육안으로 초, 재판의 식별이 가능하다. 재판 썰은 초판에 비해 색감(色感)이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들며 海州救世療養院(해주구세요양원)의 한자 글꼴이 매우 달라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차이점이 있다.

 [초판 썰]	진한 연두색	붓글씨체	글자간격이 일정	자체가 작고 등글다	썰, 썰침만 발매	 [재판 썰]
	바탕색	한자 글꼴	한자 간격	AND GOOD의 D	재직 발매	
엷은 연두색	고딕체	養과 院 간격이 좁음	자체가 크고 선명하다	썰, 썰침, 전지를 발매		

최초 썰의 발행일

초판 썰 발행일 초판 썰은 홀 박사의 자서전 443쪽에 『조선의 초판 썰은 1932년 12월 3일에 발행되었으며 배재학당의 아펜젤러 목사가 처음으로 이를 구매하였다(The first edition of Korean seals was issued on December 3, 1932, and our first purchaser was the Rev. Henry D. Appenzeller of Paichai Haktang)』라고 일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초판 썰의 발행



◀ 썰발행 5주년 기념 소형시트
 ▲ 썰 발행 5주년 기념 포스터 (1936년 발행)

일자가 규명되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 1932년 12월 11일 조간 5면에 최초의 썰 발행에 대한 기사가 있으며, 당시 기사에 의하면 썰 1장에 2전, 한 권(썰첩을 뜻함)은 1원에 판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재판 썰 발행일 재판 썰은 결핵협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료에 1937년 발행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에 대해 재판용 썰은 1936년에 발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집가로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일로 생각된다. 재판용 썰은 1932년 썰 발행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리프린트한 것으로,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썰 소형시트(그림 A)에 재판 썰이 수록되어 있으며 연도는 우하측에 세로방향으로 1932~1937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통은 이를 기준으로 재판 썰의 발행을 1937년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홀 박사가 발행한 모든 썰은 다음 연도의 신정이나 구정에서도 연하장 등을 발송할 때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썰이나 썰 엽서에 당년도와 익년도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으므로, 1936년의 썰 인면에 표기된 1936-1937년을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만 5주년이 되는 1937년 말에 재판 썰을 발행하였다면 소형시트에도 1937년의 썰인 “팽이치는 소년”이 수록되어야 하므로 1936년도에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 아울러 1936년도에 발행한 5주년 기념 포스터를 보아도 상단에 재판 썰이 수록되어 있으며(그림 B) 이 경우도 포스터 상단에 ‘제5주년 기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썰 발행 제5주년의 경우는 만(滿)으로 하지 않고 헛수로 산정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판 썰의 발행일에 대해 하세가와 카타로그를 포함한 국내의 대부분의 자료에는 재판 발행일을 1937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결핵협회에서 발간한 “한국의 크리스마스 쉘(2003. 11.6)” 책자에도 193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이창성 님이 보전세계에 투고한 원고에는 이를 1936년으로 모두 기록하고 있으며 협회 발간의 “한국의 크리스마스 쉘” 책자에서도 재판 발행은 1937년이나 재판이 수록된 소형시트는 1936년으로 기재하여 스스로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재판 쉘 발행을 1936년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문서에 의한 추가 고증자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동호인들의 많은 의견을 구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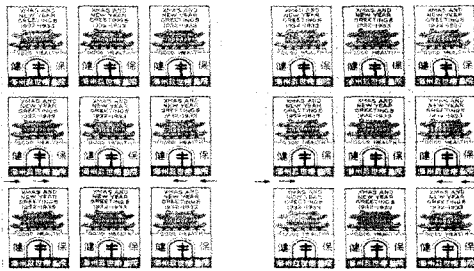
최초 쉘의 전자구성

초판용 전지 쉘 발행이 당국에서 승인된 후에도 이를 지원해 주는 조선의 각 선교단체에서 허가를 얻은 후에 쉘을 인쇄하여야 하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 홀 박사는 자서전 443쪽에서 『쉘 전지 하부에 후원자로서 Haiju Sanatorium(해주구세요양원)이라는 명판을 인쇄하였으며(With the name of the Haiju Sanatorium Imprinted on the bottom of the sheet of seals as the sponsor), 쉘을 많이 인쇄하기 직전에 각 선교단체에서 허가가 되어, 이후부터는 인쇄시 명판을 삭제하였다(Before many seals got off the press, I received the Haiju Sanatorium name deleted from all subsequent printings)』라고 회고하고 있다. 아울러 『명판이 인쇄된 초판 쉘 전지는 폐기하기 보다는 미국의 후원자에게 기념으로 우송하였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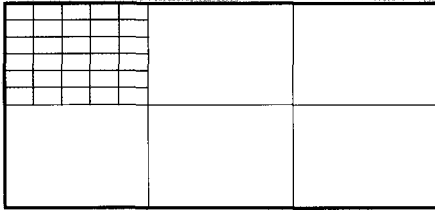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까지 명판이 인쇄된 초판 쉘 전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명판이 인쇄되지 않은 초판 쉘 전지조차도 전 세계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다. 만일 홀 박사가 언급한 해주구세요양원의 명판(銘版 ; imprint)이 있는 초판 전지가 발견된다면 이는 쉘에 있어 최대의 국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일제 시기의 다른 쉘은 전지 입수가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1932년 초판 쉘의 경우만 전지가 발견되지 않는 주 원인은 초판 전지의

경우 전지 자체를 판매하지 않고 절단하여 쉘첩(Booklet) 제작용으로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초판의 모든 페인에는 7번 위치에 “남대문 1층의 지붕선이 끊어진 모습”이 일정한 변종(變種)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쉘 10매 단위를 실용판으로 하여 전사(轉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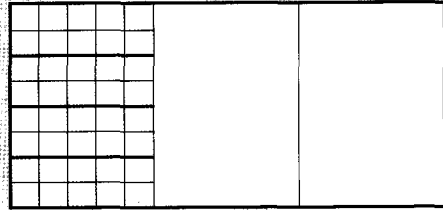
재판용 전지 초판의 경우는 쉘과 쉘첩만 발매하였으나 재판의 경우는 쉘과 쉘첩 이외에



페인용 쉘 전지 (부분)



씰 전지(재판)의 인쇄전지 구성



페인용 전지(재판)의 인쇄전지 구성

씰 전지(Seal sheet)도 발매하였으며, 이외에도 씰첩을 제작하기 위한 페인(Pane)용 씰 전지를 별도로 인쇄하였다. 재판용 씰 전지는 씰 25매(5×5)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변지에 영문으로 “FIRST YEAR KOREAN CHRISTMAS SEALS. (Reprint)”라고 명기되어 있다. 재판 씰 전지는 비교적 입수가 용이하며 하세가와(Stephen J Hasegawa) 도감에 의하면 재판용 씰 전지는 전지 3개를 2줄로 하여 총 6개의 전지를 한 장에 인쇄한 인쇄용 전지를 재단한 것으로, 가운데 줄에 위치하는 전지의 상변지에는 +형태의 인쇄가늌표(Guide mark)가 인쇄되어 있다.

페인용 전지의 경우는 가로방향으로 5매의 씰을 2줄씩(5×2) 10매 단위로 하여 아래 방향으로 4개씩 즉 40매 씰($5 \times 2 \times 4$)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경우도 40매의 페인용 씰 전지 3개가 횡으로 연결된 총 120매 씰 전지가 인쇄용 전지로서 이를 재단하여 40매 페인용 씰 전지를 만들고 이를 잘라서 페인을 제작하였다. 120매 페인용 씰 전지는 입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필자를 포함하여 보유 수량은 전 세계에 10매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페인용 씰 전지는 거터(Gutter: 전지나 페인 사이의 변지 여백)가 무공으로 되어 있어 일반 씰 전지와 쉽게 구별이 되나 간혹 이를 천공 애러로 인지하여 종간(從間)이나 횡간 무공(橫間無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이 글은 쓴 남상욱 님은 서초우취회 부회장으로 현재 (주)윤영방재인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저서로는 공학서적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있습니다.